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개강

성경대학도 이번 주간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이 주최하는 제 17학기 목회자신학 세미나가 27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제 1교시 (오후 2시 ~ 3시 30분)에 이종운 목사가 텍스트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라는 주제에 맞춘 10개의 특강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매주 심도있게 이루어지게 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개설한 서울 성경대학 제 7학기 강좌도 이번 주 일제히 개강한다. 평일을 이용하여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된 서울성경대학은 신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다락방장반(리더

양성반)을 비롯하여 여호수아반(월요일), 신명기반(화요일)이 개설됐고 음악교실(목요일)도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7학기 프로그램

실시일	제 1교시	제 2교시
3. 27.		전통적 서구신학에 대한 비판과 한국 교회를 위한 바람직한 신학운동 김영환(숭실대)
4. 3.	사도행전 연구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역할 유은상(서울여대)
4. 10.	이종운 목사 (서울교회)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청사진과 교회의 역할 전호진(헛볼트리니티대)
4. 17.		급변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조용훈(한남대)
4. 24.		한국 사회에 기독교 학교의 자리매김 이원설(기독교학교연맹)
5. 1.		민족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교회의 사명 고왕인(통일논단)
5. 8.		한국의 전통 문화와 교회 갱신 김문환(서울대)
5. 15.		우리 경제의 미래와 내일을 여는 기독교인의 자세 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5. 22.		한국 언론사에 나타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대안 강대인(계명대)
5. 29.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반성과 대책 이종성(한국기독교교육학회)

우리 서울교회에는 자랑스런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 직분자들의 열성 어린 봉사,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최,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축, 탈북동포를 위한 다양한 섬김, 농어촌 100교회 운동, 세련된 예전의 집회 등 우리보다도 외부인들이 더 부러워하고 놀라는 일들을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대학에서 다락방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리더양성반(이하 리더반)이 그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도 리더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반은 서울교회가 선구적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여기에 새천년, 새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새롭게 진행되는 리더반에 모든 성도가 참가해야 할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리더양성반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

- 첫째,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과 함께 동역 하시기 때문입니다.
-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 셋째,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넷째, 훈련된 사람은 새예배당 시대에 교

회부흥의 참된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훈련 받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반 1교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제자의 도’ 강해설교가 예정되어 있어 벌써 기대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2교시는 일꾼에게 필요한 주옥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부목사님들을 담임으로 하여 반별로 공부가 진행되는

데, 이를 위하여 목사님들의 많은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귀한 기회를 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서울교회 부흥의 대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말씀과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경선 목사>

이사야 강해

복음이 주는 축복

이사야 35장 1-4절

에돔의 비참한 심판을 말한 이사야 34장과는 대조적으로 본문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광야가 기름진 동산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천국 운동, 즉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운동을 비유한 것입니다.

1. 사막에 꽃이 핀다

본문 1, 2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기쁨은 광야나 메마른 땅 자체가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과 같은 죄인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자기들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 구원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참기쁨을 맛보게 된 자들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2절)는 것은 앗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했던 유다가 회복되어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신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황폐하고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열매를 내지 못함으로 오랫동안 광야와 같았으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들어왔습니다(행 8:8).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첫째, 진전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시 19:8).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원수 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뀔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롬 14:17).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참된 기쁨의 나라를 얻

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참된 기쁨의 꽃이 피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인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참을 뿐 아니라 그들을 견고케 해야 합니다(롬 15:1).

복음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이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갈 6:9, 고전 3:6).

복음을 믿는 일은 가장 즐거운 일이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사 35:1-4)



이종운 목사

간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것에 온전히 감동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회복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사회의 부조리가 없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고 순종하므로 가능합니다. 창조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보존의 능력이 있으며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으시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회복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선지자는 구원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가 모든 약한 자들, 즉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라고 합니

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가진 기쁨(마 13:44)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겁이 많고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활기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3절이 실망하여 힘없이 지내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라면 4절은 겁약한 자들에게 굳세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엡 6:10-11). 우리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시 40:30-31).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약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고 강한 자도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약한 자들에게 구세주가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때가 차면 메시아가 오시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는 소망으로 그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했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했고 겁내는 자들이 굳세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3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섰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날씨는 3월 26일 주일이겠지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주어진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하지요? 저에게는 부모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서울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전함으로 자리잡는 것 같을 정도니까요.

제 마음에 담고 가는 서울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1991년 11월,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1회 졸업생이 기도 하지요. 많은 것 알지는 못했지만 눈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형통하게 해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교회. 삼척으로 다녀왔던 두 번의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기억나구요, 6년간 장기 출석하며 울고 웃고 철이 든 대학부에서의 신앙 생활이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교회학교 봉사를 하던 유치부에서의 성경학교와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기억합니다.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태어났던 어느

저, 결혼합니다

노애리(제 6교구, 청년부)

집사님의 아이가 어엿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결혼하는 저에게 지난 주일에 "선생님, 그럼 이제 아줌마 되는거예요?" 하며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풍요로운 전국 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8년 4개월. 제 인생의 삼 분의 일이 조금 넘는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낸 서울교회. 떠나기엔 아쉬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마다 새벽이면 어디서든 문제없이 달려오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주일 아침이면 은근히 기대가 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유치부 성가대 아이들의 찬새같은 재잘거림과 그들의 찬양. 추우나 더우나 꼭 가고 싶은 옥담층 식당의 매주 궁금한 '오늘 국은 뭘까?'. 2층에서 드리는 대학부 청년부와의 다함께 하는 필그림의 깊고 은혜로운 찬양. 주일 오후 1층과 3층 여자화장실에서 들려지는 권사님들

과 집사님들의 목소리들까지. 졸업장 없는 졸업을 하게 된 청년부가 맘에 납니다. 삶을 사랑하여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픈 이들이 가득찬 곳. 그들과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을 같이 했던 일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어디에 가든 '서울교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시댁이 섬기는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지만 서울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부단히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새가족'이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겸손하겠습니다.

날 길러주신 하나님! 자랑스러운 가정 세우겠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사랑을 퍼 주신 엄마와 아빠! 두 분의 소망대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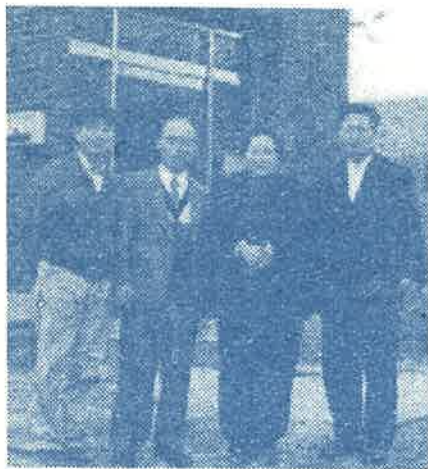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자매들! 떠나더라도 당신들의 열정에 동참하는 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눈에 선한 여러 성도님들! 이 글을 읽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후원 농어촌 교회를 다녀와서

'굴암'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손재영 (청년부)



청년부가 미약하나마 농어촌교회를 후원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굴암리 소재의 굴암교회를 방문했다.

굴암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최효임 전도사는 "이 지역은 '굴암' (굴속의 암자)이라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굴 속에 부처상을 옮겨놓고 섬기고 있으며, 강가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등 교회가 영적인 풍토를 바꾸기에는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굴암교회는 8년 전에 치는 8평 짜리 방에서 저와 몇 명의 성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런대로 지냈으나 IMF가 시작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현재는 7, 8명의 성도들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10명 정도로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가 3명,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아이들 몇 명과 부양 가족이 없는 노인 몇 분이 현재 굴암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18가구의 마을 주민,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약 60여 가구의 150여 명의 주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속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라고 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4학기부터 참석하신 이후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어 오신 최 전도사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달 이상 감기로 고생하고 계셔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현지 교회의 상황을 전했다.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고생이 심해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무인도 같은 곳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굴암교회의 한 달 현금 총액은 5천~ 2만원 정도 현재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십만원의 후원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직접 듣지 않아

도 잘 알 수 있었다.

"이 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후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기쁨과 겸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진솔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최 전도사에게서 이 땅 한 구석이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3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앞이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된 새가족 *

이선영 장화원 박승희 장선영 이금희 정지현 정미화 김 준 김수용 박현숙 김효진 강낙훈 심상훈 최신의 김은태 전하미 박운순 박용균 정용욱 신동천 박용혜 신혜정 이은영 진승희 진영환 최규초 노순례 최정희 최 호 이채희 이지아 김동욱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영단(지난 주 계속)

전도자	태신자
박종민	임경석 강선미

우리교회 유엔 청원 50만명 돌파 전국적으로 3백만명 ... '탈북자 절규 외면 못할 것'

김상철 장로(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 본부장)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3월 19일) 탈북난민유엔청원 서명 오십만 명을 돌파했다(총 513,441명). 청원운동 위원장 이종윤목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100만명 서명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전국적으로 313만명이 서명했는데 그 중 6분의 1을 서울교회가 감당한 만큼 앞으로 일천만 명 서명이 달성할 무렵이면 서울교회가 정말 일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명인 수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서명을 통하여 탈북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진다. 작년 12월 19일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에서 6인의 사절단을 구성하여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를 방문하였을 때 중량 700kg이 되는 257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하였는데 UNHCR 당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청원서를 접수하게 된 것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들로서도 탈북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중대 현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 서명 인원수가 3백만명을 넘어서고 국내 의에서 5백만, 7백만, 천만 명이 달성될 때

으로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 현실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은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서 전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전개하면 할수록 탈북자들의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운동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국 도처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비단 그들의 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간적 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만든다.

이제 탈북자 보호는 당위가 되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부의 활동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일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성과와 긍정적인 전망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인 서명 활동과 기도로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서명에 동참하여 탈북난민 보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청원서명 천부장 이상 명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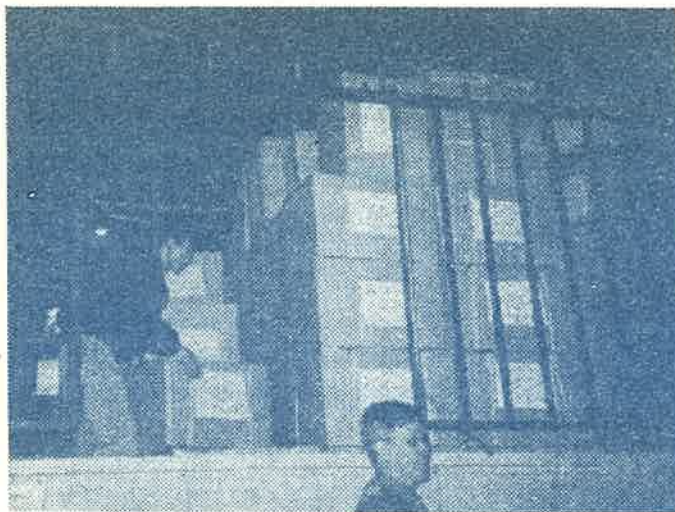
- ▶ 9만명 이상 : 김세제(94,646) 김인식(90,268)
- ▶ 5만명 이상 : 박순봉(55,343)
- ▶ 3만명 이상 : 이복규·한명순(44,651)
김선미(35,120) 김현주(34,063)
- ▶ 1만명 이상 : 함송현(17,976) 홍성주(15,950)
이학(15,668) 이수자(12,600)
- ▶ 5천명 이상 : 박이준(6,330) 이상태(7,280)
이민화(8,938) 조명녀(6,094)
김재술(5,274) 이우상(5125)
- ▶ 3천명 이상 : 심재을(3,270)
- ▶ 2천명 이상 : 전기섭(2,880) 남영주(2,076)
박연순(2,014) 김병숙(2,339)
김현정(2,245) 김대웅(2,460)
김복녀(2,091)
- ▶ 1천명 이상 : 김정란(1,002) 김진달(1,350)
방계운(1,080) 서문석(1,080)
이계홍(1,305) 이남성(1,524)
조철기(1,050) 이동만(1,277)
이보우(1,100) 천정화(1,741)
최형렬(1,020) 권영옥(1,710)

■ 동정 ■

- * 이우상 집사(11교구)는 오금동에 '대림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 407 - 8588.
- * 김희연 성도(4교구)는 20일(월) 득녀했다.
- * 박영희 집사(4교구)는 23일(목) 반포동에 '커피갤러리'를 개업했다. ☎ 545 - 7774
- * 김원중·이갑연 집사는 강대상 드림천을 기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노송성 장로·이영옥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바울선교회는 27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복으로 가는 86개의 열매 구제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탈북난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23일(목) 우송했다. 성도들이 앞다퉁 가져온 의류 등 물품은 남녀노소 회원들의 수고의 손을 거쳐 계절별, 성별, 종류별로 분류되어 86개의 상자에 담겨졌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태신자들과 70인전도대 활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